



2005년도 임원진 워크숍 개최



협회는 4월 8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평창군 소재 휘닉스파크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30여 명의 임원진과 벤처정책자문 클럽, 윤리위원 등이 참여하여 '벤처 재도약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 네트워킹을 통한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임원진은 신규임원 중심으로 각각의 회사소개 및 비전을 발표했다. 임원들은 벤처기업의 대표답게 각 기업의 사업분야와 비전, 자기소개를 독특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어서 임원진은 5개 분야별 포럼으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벤처정책포럼은 2007년 시한인 벤처기업특별법의 연장과 관련한 정책건의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벤처사회공헌포럼은 벤처

문화재단 설립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홍보정책포럼은 2005년도 벤처산업의 전략적 홍보방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보통신 및 부품소재산업포럼은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불공정사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벤처문화산업포럼은 문화산업의 벤처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산업 펀드 1조 운영' 참여에 관해 논의했다. 분야별 포럼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임과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 업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산업발전연구원 최동규 원장이 행사장을 찾아 '혁신형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 - 선진국 경험과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원도에 산불재해 복구금 전달



협회는 '2005년도 임원워크숍' 자리에서 4월 5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재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강원도 조관일 정무부지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협회 임원진은 산불재해 소식을 들은 후 워크숍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예산을 최소화하고 성금을 마련했다. 조회장은 "협회 임원단의 단합과 벤처산업의 발전방향을 토론했기 위해 강원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면서 "하지만 산불참사를 접하고 적은 액수지만 협회 차원에서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금을 전달받은 조부지사는 "강원도청도 이번 재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벤처업계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피해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3월 31일 대전광역시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금융과 자본, 기술사업화,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대통령은 대덕연구단지 내 한 식당에서 협회 조현정 회장 등 벤처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벤처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3월 29일 역삼동에서 '2005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벤처기업경영자기지원제도(매자부활프로그램)의 도덕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평가기준을 좀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갖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5년도 벤처윤리경영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벤처홍보네트워크(위원장 박근우)는 3월 31일 삼성동에서 벤처홍보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2차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2005년도 벤처홍보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가판페이, 디지털온라인 뉴스 저작권 등 최근 언론동향과 벤처홍보전략방안을 논의했다.